

제주도의 蛇鬼*

秋 葉 隆

김난희 역**

제주도 신화에는 머리가 하늘에 닿고 꼬리가 땅에 이를 정도로 큰 龍神이 나오는가하면 배개모양의 작은 함(函)에 들어 있는 작은 뱀이 등장하여 이것이 주민의 신앙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관한 문헌으로서 金冲庵의 「제주풍토록」이 있는데, 「제주인은 풍속으로 뱀을 아주 꺼리며, 받들어 모심으로써 神으로 섬긴다. 사람들은 뱀을 보면, 즉시 빌거나 술을 바치지, 감히 죽이지 않는다. 우리(陸地人)는 멀리서 보여도 그것을 반드시 죽인다. 이곳 사람들(土人)은 처음에는 육지인들이 뱀을 죽이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고 오랫동안 보아오면서 익숙해졌으나 그러한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여겼다. 뱀은 응당 죽여야 함을 깨닫지 못했다. 심히 가소로운 일이다.」라고 적혀있으며, 「동국여지승람」에도 이 지방에 뱀과 지네가 많으며, 만약 회색 뱀을 보게되면 즉시 차귀신(遮歸之神)으로 간주하여 죽이는 것을 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大靜縣 城隍堂의 註에는 이 성황당은 「一名 차귀당이며, 관습적으로 사람들은 뱀귀신에게 제사지낸다. 집의 벽·대들보·초석에 많은 뱀들이 엉켜 산다. 제사때 이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서로운 일이라고 한다. 차귀(遮歸)라는 글자는 사귀(蛇鬼)의 오전이며, 차귀당은 대정현 서쪽 26리에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濟州牧 항목에도 「遮歸祠는 제주

* 原題 : 《朝鮮民俗誌》, “濟州島神話”에서 발췌

** 제주대학교 전임강사

서쪽에 있다。」라고 써어있고, 『耽羅志』의 기록역시 대체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이 섬의 답사에 즈음하여 미리 준비해야 할 문제의 하나로서 蛇鬼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보았다. 제주에는 실제로 여러가지 뱀이 살고 있다. 제주 城內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뚫출래'라는 뱀은 구렁이 종류인데, 이것에 소변을 보면 사람에게 달려든다. 그때 왼 쪽에서 오른 쪽으로 돌아서 달아나던 뱀의 몸이 동강난다라고 말해지던, 서귀포에서는 이 뱀을 '뚫초리'라고 발음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부군'이라는 뱀은 길이 2척 정도의 황색 뱀으로서 쥐의 귀처럼 생긴 귀가 있으며, 집을 풍요롭게 하는 富神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귀포 부군에서 서식하는 뱀의 종류에는 '삿배암'이라는 황색의 작은 뱀, '물뽕기'라는 살모사, '구렁이'라는 큰 뱀 등이 있다. 그러한 뱀들 중에서, 특히 꼬리가 가는 구렁이가 신성한 뱀 즉, 神蛇이며, 꼬리가 굵은 구렁이는 귀신의 부류에 넣지 않는다. 兪山堂 神話에는 '만쥬에미'라는 작은 뱀이 나온다.

따라서 지금도 뱀에 대한 기적이 전해지고 있으며, 현실에서도 경험된다. 예를 들면, 어느 해 봄 제주면 영평리 농부가 한라산 쪽으로 장작을 하러 갔는데, 큰 나무가 쓰러져 있기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콩초를 버렸다. 그랬더니 잠시후 그 큰 나무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때서야 그게 커다란 뱀인줄 알고 놀라 귀가했다. 그리고는 그대로 죽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이 사실 큰 나무만큼 큰 뱀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蛇鬼신앙속에서 성장한 섬사람이 어떤 기회에 앉았던 나무가 움직이는 것을 뱀이라고 생각했다는 그의 주관적 경험만은 사실일 것이다. 소위 기적이라는 것은 대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기적은 결코 황당무계한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古代의 종교적 분위기가 짙은 사회에서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사실이며 현재도 일정조건 하에서는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문헌에 보이는 대정현 서쪽 26리에 있다고 하는 차귀당은 지금 그 터라고 생각되는 것이 섬 서쪽 끝 고산리 고산악 동쪽 기슭에 있으며 속칭 담무기라고 하는데 제주 명물인 돌담¹⁾에 둘러싸여 있고,

1)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므로 초가지붕을 새끼줄로 동여대고, 집 또는 전담은 돌

제주도의 蛇鬼

암석과 관목이 있으며, 늘 험경과 종이로 된 폐백이 걸려있다. 이런 연유로 고산악은 일찌기 차귀악 堂山(당오름)으로 불렸으며, 정상에는 차귀악 봉수(당산봉수)가 있으며, 지금도 당산봉이라고 하는데, 그 南西쪽 차귀포 해상에는 차귀도라는 작은 섬이 있다. 한편 濟州牧 항목에 「在西州」라고注가 달린 차귀祠는 「在西州九十里」라고 써어있으므로 역시 차귀악의 차귀당을 가리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제주 서쪽 90리 대정현 서쪽 26리 다시 말해서, 제주와 대정 경계에 있는 성황당이기에 때문에 대정·제주 양쪽에 중복해서 나온 것 같다. 어쨌든 지금은 옛날 무리져 엉켜살던 뱀이(群蛇盤結) 집을 잃었고 옛날의 강렬했던 신앙도 헤아릴 길이 없으나, 遮蹄를 蛇鬼의 誤傳으로 풀이한 「여지승람」의 說은 경청할만한 것으로서 제주 三冊지도에는 차귀포를 사귀포로 기록하고 있다. 섬 南岸에 있는 서귀포·地歸島 또는 知歸島 여기서부터 동쪽 일대 옛이름 정의등 차귀와 인연이 있는 듯한 지명은 적지 않다. 특히 이 옛 정의 지방은 오늘날 제주도에 있어서 蛇鬼신앙이 가장 강한 지방이며 토산리 토산당이 그 본산이다. 토산당 祭神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오늘날 전라남도 나주 교외의 三峰의 神山, 錦城山에서 날아온 세개의 금구슬(金玉)에서 태어난 三女神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蛇神인 점은 뱀에 관한 것을 兪山堂 鬼神이라고 칭한 것으로 보아도 분명하며, 또한 뱀을 할망이라는 제주방언으로 부르고 있는 점으로 보아 토산당 神이 女神이라는 것과 일치한다. 실제로 이 변두리 지역은 朝鮮에서는 드물게 수목이 많으며, 대나무·동백 등 일본의 시골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있으며 뱀종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오지의 산림지대에 들어 갈수록 뱀은 많다. 그래서 民家 중앙에 토방이 있으며 그 안에 화로를 놓아 불을 때서 山蛇의 害를 막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차귀당 근처 마을에 許氏라는 용감한 사람이 있었는데, 말을 탄 채 神堂 앞에 이르자 마자 갑자기 쓰러져 버렸다. 그래서 때마침 신당에서 기원중이던 무당에게 명령하여 神刀로 말의 한 쪽 다리를 잘라 神前에 바쳤더니, 돌 담 속에서 한마리의 커다란 뱀이 나타나

담으로 에워싸는데, 돌을 쌓아서 만든 돌담 틈새로 바람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놓았다.

서 이것을 먹으려고 하였다. 이 뱀을 보자마자 그는 한칼에 베어 죽이고는 잘게 토막내어 단지에 넣은 채 땅 속에 묻고 돌아왔다. 그러자 그날 밤 꿈 속에 무수한 작은 뱀이 나타나 허씨를 괴롭혀서, 그 다음날 아침 차귀당에 가 보았다. 그랬더니 전날 토막낸 큰 뱀이 수많은 작은 뱀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중 한마리가 빠져나와 토산당 귀신이 되었다²⁾는 것이며, 앞서 말한 토산당本解의 神話와 더불어 유추해 볼 때, 이 섬의 蛇鬼신앙을 응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섬에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옛 화산의 분화구가 있으며, 산허리에서 산기슭에 걸쳐 봉분처럼 펼쳐져 있는 오름(小火山) 하나 하나가 그에 상당하는 穴(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山上에 못물을 채우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물이 모자라는 이 지방 사람들의 주위를 끌게 되었다. 그래서 한라산 백록담에는 神龍이 살고 있다고 말해졌으며 정의현 산악에 대해서도 「봉우리에 용소(龍湫)가 있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으며, 그해 가뭄이 들 때 기우제를 드리면 효험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서, 「그 정상에 큰 못이 있다.」라든가 「오름 가운데에 눈이 있다.」, 「정상에 큰 구멍이 있다.」라는 文句가 동국여지승람 제주목 조항에 자주 보인다. 특히 용암이 유출한 동구에 대해서는 동굴 신앙의 신화가 발전해서,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毛興穴 즉 三姓神話이나, 섬의 도처에는 蛇窟이라고 부르는 聖所가 있다. 예를 들면, 정의면의 東南穴, 은평리 남수정 도로 서쪽에 있는 사굴같은 것은, 입구에 토사가 퇴적해서 몸을 굽히지 않으면 들어 갈 수 없으며 내부는 높이가 6척 폭이 수 칸, 깊이는 성산포 해안까지 통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성산포에서 제주성내에 이르는 중간, 섬의 東北岸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어찌면 토산당과 맞닿은 위치 일른지도 모르는 그 곳에 김녕사굴이라고 알려진 큰 동굴이 있다. 높이가 두 칸 정도의 횡혈이며 등불을 들고 깊숙이 들어가면 실로 요기가 엄습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이 곳에 굴당이 라고 하는 神堂이 있어서 매해 처녀를 바쳐 제사지내고 이를 게을리하면 흉년이 든다고 말해졌다. 그 희생의 대상이 된 처녀는 무당의 神命에 의해 선택되

2) 정의면장 高氏談

제주도의 蛇鬼

었다. 어느 해 牧使가, 부하의 딸이 제물로 택해진 것을 가없이 여겨 구해내고자 결심하고서 많은 부하를 이끌고 굴당에 당도했다. 마침내 신당에 처녀를 바치고 무당이 기도하자 과연 한마리의 큰 뱀이 나타나 처녀를 먹으려하매 부하와 함께 뱀을 내리쳤다. 이후 처녀희생의식은 없어졌으나, 그때 목사의 도포에 피가 묻어 있어서, 돌아오는 도중 내내 붉은 구름이 목사의 뒤를 따랐으며 목사는 제주성문을 들어섬과 동시에 쓰러져 버렸다고 전한다. 오늘날 김녕사굴은 일찍이 가공할만한 蛇鬼信仰의 聖所였음을 말해주는 전설의 본거지이다.

김녕에는 東海용녀의 세 딸을 모신다고 하는 大堂·中堂·小堂의 세 聖所가 있다. 그중 언니 神을 모시는 大堂과 동생 神을 모시는 小堂은 모두 차귀당 토산당과 마찬가지로 돌담안에 돌제단과 聖樹가 있으며, 여기에 폐백을 거는데, 가운데 언니를 모시는 中堂은 통칭 돛당(豚堂)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세칸 썸 되는 동굴이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일년에 한번 돼지를 잡아 이 돛당에 바쳐 豚祭를 거행하고 있다. 돼지새끼가 태어나면 그 귀를 잘라 돛당에 바쳐야 生育이 좋아진다고 하며, 그러한 돼지는 자라도 남에게 팔지 않으며 집에서 도살할 때도 그 머리를 돛당에 바치는 것이 함경도 지방의 칩간도 야지와 같다. 그런데 앞서 말한 토산당제는 연 3회(3月8日, 6月8日, 11月8日)에 닭, 떡, 甘酒를 바치며 부락의 남녀가 모여 무당이 이를 주관하는데 여기서 돼지는 금물이다. 돼지를 먹은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이 지방 사람은 「토산당 뱀은 돼지를 싫어하지만 김녕의 뱀은 돼지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돛당의 동굴도 원래는 사굴이었으며 거기서 살고있는 돼지를 좋아하는 女神이야말로, 말하자면 돼지를 좋아하는 김녕의 뱀과 同類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김녕에서의 사귀신앙은 美化되어 東海 龍女の 딸로서 생각되고 있는 사실이 전술한 바와같다. 이처럼 제주 서쪽에 있는 차귀祠는 지금 그 터를 방문하려 해도 그 방도가 없으며 차귀당 또한 옛날의 자취를 잃었으며, 김녕사굴도 공허하게 과거의 전설적 흥미만을 남길 뿐이다. 그 돛당인 사굴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사굴인 것조차 잊혀지고 있는 오늘날 오로지 토산리의 토산당만이 강하고 명확한 사귀신앙의 중심으로서 정의면·동중면·서중면 및 右面東部에 걸쳐진 곳의 옛 정의현을 主要部로 한다. 섬의 동남부에 군

림하고 있는 것은 실로 흥미깊은 사실이다. 특히 그것은 이 지방 여성의 신앙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토렘이라고 할만한 토산당 귀신은 다른 지방 사람들로부터는 일종의 공포·혐오 모멸이 혼재한 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그 중심이 되는 토산리는 옛날의 토산현이며 제주도 무격의 발상지로 생각되며 실제 신왕돌(愼王堊)이라는 이름난 늙은 무당이 있다. 그래서 이곳 처녀와 결혼하면 토산당 귀신이 따라 온다고 하여 꺼리며 간혹 토산리 여자가 다른 지방에 나가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 귀신을 모신다. 그 때문에 그녀들은 제주城 밖의 운주당(運壽堂) 근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토산당 散中이라고 하는 分社와 같은 것을 만들어 그녀들의 특이한 신앙의 대상을 여기서 찾으며 그곳 사람들은 이에 대해 異敎의 시선을 던지는 것이다. 이와같이 토산리 출신 여성에 대해, 친밀하게 내적 생활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지만, 이와같은 에피소드는 다분히 타향에서의 토산리 여성의 종교적 사회적 지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젠가 제주 성내에 와 있던 토산리 여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성안의 한 여인에게 팔았는데, 이것을 사서 가발을 만들어 쓰고다니던 여인이 갑자기 두통을 일으켰다. 그래서 토산당 散中에 기도를 올렸더니 쾌유되었다는 이야기다.¹³⁾

이처럼 토산당 귀신 즉 蛇鬼신앙은 현재는 섬의 동남부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제주대정의 경계 차귀악 기슭에 차귀당이 있는 이상 그 신앙은 당연히 양쪽 지방에 걸쳐 있었던 걸로 생각된다.

김녕사굴도 오랫동안 신앙이 성했으리라는 것을 전설로서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신앙은 옛 제주·대정 양 방면에 걸쳐 왕성했었던 듯하며, 오히려 정의 방면에는 차귀당의 기술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차귀신앙이 정의방면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산 남쪽 멀리 떨어진 땅인 까닭에 이 지방에 관한 지식이 빈약하여 기록되지 못했을 것이며, 원래 이 지방이야말로 차귀신앙의 본거지이며 태종16년 한라산 남쪽 폭 16里 남짓의 땅을 개간하여 동쪽을 정의, 서쪽을 대정으로 삼고 현감을 두었을 그 당시에 이미 蛇鬼신앙의 本地로서의 차귀와 비슷한 그 지방의 명칭이

3) 吳龍國氏談

제주도의 蛇鬼

있었을 것인데, '旌義'라고 하는 까다로운 漢字로 배겼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던 제주도는 일찍이 천재보다도 훨씬 넓은 범위에 걸쳐 차귀신앙을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

돌이켜 보면, 현재 제주도 주민생활을 볼 때 거기에는 山地에 살면서 노루·오소리·들개 등의 털가죽 의복을 입고 주로 수렵·숫곰기·火田·목축 등을 했던 山村人과, 해안의 평지에서 마을을 형성한 해녀(海女)를 위시해서 용감한 해양활동과 더불어 보리·조·메밀을 경작하며 생활한 海村人이 있다. 그리고 그 중간지대에 왕왕 中村人이라고 부르는 부류를 보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山村人에 가까운 것이다. 이 섬의 뱀이 山地에 많은 것을 생각해 볼 때 山村人이 海村人보다 뱀에 대해 관심이 훨씬 컸음을 알 수 있다. 토산당·차귀당 등이늘상 토산·차귀약 등 산기슭 구릉 위 숲이 무성한 곳에 있는 사실로부터 차귀신앙이 山의 蛇鬼로써 상징된 山村人 사회의 古文化임을 암시하는 것 같다.

옛 정의현 일대가 한라산 동남의 산기슭에 해당하고 겨울의 산바람을 받는 일이 적으며 따뜻한 동남의 햇살을 받아 산 뱀이 많은 산지대를 형성하여, 섬의 불만한 곳이 흔히 해안에 있는데 비해서, 정의만은 홀로 산 속에 있다. 북쪽에는 해상 三神山의 하나인 영주산을 끼고 천미천(川尾川) 상류, 山地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토산리도 정의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나오는 도중인 송천(松川) 상류의 산간 부락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촌인 사회가 일찍이 이미 이 지방에 성립한 차귀신앙의 本地를 이루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지방 일대에서 보이는, 중앙에 봉당방울 지니고 거기에 화로를 설치하는 것도 실은 섬의 山村人가옥의 특징이다. 이것은 함경북도 부령 오지에 잔존하고 있는 통칭 '산사람', 비칭 '재가승'의 부락에서, 집집마다 이처럼 南島 번두리로 그 문화권을 좁힌 차귀신앙 사회가 반도 북쪽 구석에 잔존하는 山人社會의 일부분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으나 적어도 그들이 지니고 있는 차귀신앙은 이 섬의 山村人 사회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차귀로써 상징하는 산촌인 문화는 애초에는 현재 지역에만 국한되진 않았을 것이며, 이 섬의 대부분에 걸쳐 꽃피웠으리라는 것을 김녕사굴·제주 차귀사·차귀약의 차귀당, 서귀, 지귀, 정의 등의 지명이 암시하는 바이다.

현재 그것이 아주 좁은 문화권을 지니는 데 그치는 것은 비교적 생활이 윤택하여 산촌인보다 반도 육지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쉬운 海村人 문화에 쫓겨 점차 그 본거지라고 볼 수 있는 동남부 산속으로 밀려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해촌인 문화에 있어서 그 상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필자는 '龍神 신앙'을 들고자 한다. 왜냐하면, 全島 해안부락이 있는 곳, 후미진 곳의 둔치 벼랑의 洞穴 등에 龍王夫人堂이라고 일컬어지는 聖所가 있기 때문이다. 漁民은 여기에 쾌각·폐백을 바치고 서귀포 緣外川 하구에 있는 그것처럼 당내가 폐백으로 가득차고 음식 상자에 담긴 제물로 盛觀을 이루고 있다. 해양민이 가장 흔하게 행하는 제사가 용왕새신(龍王賽神)이라는 것도 얼마만큼 그들에게 있어서의 용신의 지위가 중요한가를 말해준다. 필자도 한번 이 새신을 목격했는데, 이 새신은 해변의 암초 위 급조한 움막에 神壇을 설치하고 제물을 쌓고 종이 돛을 펴고 폐백을 묶어 그 옆에도 따로 제삿상을 바치며 움막처마에서부터 신다리(神橋)라고 하는 하얀 천조각 하나를 길게 늘어뜨려 물가에 닿게 한다. 집안에는 무척 여러명이 종을 치고 가무하며 끊임없이 용신에게 비는 것이다. 자세히 집안을 들여다보던 환자가 한쪽 구석에 누워있고 때아닌 이방인의 방문을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漁民이 용왕에게 병의 치유를 기원하는 곳이었다.

이 섬의 산촌인·해촌인에 의해 믿어지는 영등할당은 주로 바다를 건너온 風雨의 神이라고 여겨지며 9월부터 불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쯤 끝나는 이 섬의 계절풍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이것이 다시 龍神 신앙과 결합되어 있다. 즉 이 女神은 정월 15일에 와서 2월 15일에 돌아가므로 2월을 영등달이라고 하며 神月로 생각해서 여러가지 엄격한 타부가 있다. 2월경에 행해지는 영등제에는 주로 해녀들이 모이며 제물로 돼지 및 소주는 금하며, 돼지를 먹은 사람, 상을 당한 사람은 이 새신을 맞이할 수 없다.

오늘날 이 제사는 반드시 해안지대로만 국한되지 않고 상당한 오지 마을에서도 볼 수 있다. 차귀 신앙이 무성한 정의면 수산리 지방의 영등제에 대해 살펴 본다. 그것은 2월13일 巫家에서 새신을 행하고 14일에는 무당이 영등대라고 하는 神旗를 단 神竿을 들고 종을 흔들고 주문을 읽는다. 그리고 담당한

제주도의 蛇鬼

부락을 방문한다. 그러면 주인이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쌀 한홉과 술 한 그릇을 주는데 무당은 이를 때문에 뿌리고 용신에게 바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도한 후 15일이 되면 放船·浮般이라는 행사를 하게 된다. 이것은 그 부락을 위해 '도고리'라고 하는 파서 만든 목기에 대나무로 만든 돛대를 세우고 종이 돛을 펴서 툃나물·청각·우뭇가사리들의 해초를 비롯하여 쌀·닭 등을 쌓아올려 그것을 물에 띄우는 행사이다.⁴⁾ 이런 행사는 바다가 없는 오지에서도 하는데 이는 본래 해촌의 문화가 점차 산속 오지에까지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옛날에는 귀덕·김녕·애월 등 해안에서 성했던 것 같다.

요컨대, 이 섬의 蛇鬼로써 상징되는 山村의 古文化는 일찍이 섬의 대부분에서 성행했으나 龍神 및 이와 결합한 영등할망으로 상징되는 海村的 新文化의 압박으로 인해 그 신앙권을 좁히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겨우 섬의 東南쪽 구석으로 한정되고 말아서 옛날 뱀을 죽인 김충암에게 「그가 이방인이므로 이와같은 행동을 할 뿐이다.」라고 했던 섬 사람이 지금은 오히려 蛇鬼를 신앙하는 동남부락, 특히 토산리 사람에게 대해서 소위 '차귀족'이라 칭해 마땅한 蛇鬼를 빙자한 異人·異文化의 감을 지니기에 이른 것이다.

4) 拙著, 「朝鮮巫俗의 研究」 下卷, p.157.